

국내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성소수자(LGB)¹⁾의 정신건강은 이성애자와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국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 남성의 경우 이성애자와 비교하였을 때 7배 높은 우울 증상을 보였고 여성 성소수자의 경우 6배 높은 우울 증상을 보였다(이호림, 이혜민, 박주영, 최보경, 김승섭, 2017). 또한 불안장애의 경우 이성애자에 비해 성소수자는 2배가량 높은 평생 유병률을 보였다는 메타분석 연구가 있다(Ross et al., 2018). 이처럼 성소수자가 이성애자에 비해 더 많은 심리적인 괴로움(*distress*)을 경험하는 현상은 건강 불평등으로 불리며(이호림 등, 2017, Cochran & Mays, 2000)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해외 연구자들은 일찍이 성소수자의 차별 경험에 주목해왔다. 특히 Meyer(2003)의 소수자스트레스 모형은 성소수자의 차별 및 폭력 경험과 정신건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성소수자를 향한 폭력이나 폭언과 같은 노골적인 차별은 줄어들고 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미묘한 차별인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현대의 새로운 차별주의로 대두되고 있다(Nadal, Rivera, & Corpus, 2010). Meyer(2003)의

소수자스트레스 모형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차별과 폭력 경험을 외부 스트레스 요인으로 상정하여 마이크로어그레션과 같은 미묘한 차별이 소수자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성소수자가 점차 가시화되고 노골적인 차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수자스트레스 모형을 마이크로어그레션에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이성애만이 정상이라는 사회적 신념에 의해 생성되고 유지된다(Nadal, 2013). 성소수자 당사자 또한 이성애가 정상 규범으로 작동하는 사회의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Cass, 1979) 정상 규범에서 벗어난 자신의 성적지향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다. 때문에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내면화된 이성애주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거주하는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심리적 괴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의 영향을 살피고, 해당 경로의 보호 요인으로서 성소수자 공동체의 역할을 검증할 것이다. 나아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수자스트레스 모형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은 말 그대로 아주 작고 미세한(micro) 공격(aggression)을 의미하는 단어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Pierce(1970)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경험하는 사소하지만, 모욕적인 경험이 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하였다. 이후 인종, 성별, 종교, 성적지향에 근거한 일상적인 차별을 설명하기 위해 확장되

1) 보통 ‘성소수자’라 함은 LGBTQIA(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stioning, Intersex, Asexual)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성적지향에 대한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이해하고자 젠더퀴어(gender queer)나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별소수자를 제외하고 시스젠더(Cisgender) 비이성애자(non-heterosexual)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다.

어 사용되고 있다(Sue, 2010b).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Sue(2010b)와 Nadal(2013)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두 이론가가 제시하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의 구분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이 피해자의 경험적 현실(experiential reality)에 근거해 정의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Sue, 2017). 아래는 Sue(2010b)와 Nadal(2013)의 구분을 종합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Sue(2010b)는 성소수자를 인격, 사회적 관계 등의 다양한 정체성으로 구성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성적인 측면만 부각시켜 인식하는 차별적인 태도를 일컬어 과도한 성적대상화(oversexualization)로 명명하였다. Nadal(2013)은 이를 소외화(exoticization)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성소수자의 성적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해당 부분만 과도하게 궁금해하거나 설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차별이 생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이성애 중심 언어사용(heterosexist language/terminology) 범주가 있다. 흔히 사용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용어는 ‘연애는 당연히 이성과 해야한다.’는 믿음에서 기인한 언어습관이라는 점에서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분류될 수 있다(Nadal, 2013; Sue, 2010b). 다음은 비정상적으로 가정하기(assumption of abnormality) 범주이다. 이는 동성애를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보는 관점을 포함한다. 간혹 동성애자에게 동성애의 원인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동성애를 이상 발달로 인식하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마이크로어그레션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이성애중심주의의 부정(denial of heterosexism) 범주로 ‘나는 동성애자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성애주의에 근거한 편견이 없으며 차별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을 포함하

며, ‘요즘 시대에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것 또한 해당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Nadal(2013)은 이러한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이성애중심 문화와 행동을 지지하기(endorsement of heteronormative culture and behaviors) 범주이다. 예컨대 ‘게이처럼 행동하지 마라.’는 말은 동성애자로 보이는 행동을 금기시하는 동시에, 이성애 규범의 행동양식을 따르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Sue(2010b)는 성소수자를 에이즈(AIDS) 그 자체와 동일시하여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호모포비아(homophobia)를 제안했으며, 보수 기독교가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기는 태도를 죄악시하기(sinfulness)로 범주화하였다. 한편 Nadal(2013)은 성소수자를 단일한 집단으로 보고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태도 또한 차별적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보편적 경험의 가정(assumption of universal LGB experience)으로 명명했다. 또한 Nadal(2013)은 실제적인 폭력이나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성소수자에게 위협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때 심리적인 안녕감이 저해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분류했다.

이처럼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일반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가치와 규범이지만, 성소수자 개인이나 공동체의 경험을 축소시키거나 부정하는 암묵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한국판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를 확장 타당화 한 박도담과 유성경(2019)은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일반적’, ‘개인적’, ‘환경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일반적 마이크로

어그레션은 성소수자 집단을 향한 대중의 일반적인 편견에 대한 경험을 측정하며, 개인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성소수자로서 자신이 결부된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을 측정한다. 환경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 비승인(invalidation)과 관련한 경험을 묻는다. 이러한 구분은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개인적인 차원부터 사회구조적 차원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뚜렷한 차별적 의도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의 피해자는 발화자의 언행에 불편감을 느끼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무력감(powerlessness)과 비가시성(invisibility), 강요된 순응(forced compliance) 등을 경험 하게 된다(Sue, 2010b). 윤수진(2019)의 연구에 따르면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회피대처를 완전매개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피해자로서 하여금 적극적인 대처를 어렵게 하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의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현정(2021)의 연구에선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연구자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의 모호한 특징 때문에 성소수자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피해사건을 지속적으로 반추하게 되어 우울증상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Kaufman, Baams, & Dubas, 2017). 논의를 종합해보면 성소수자가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할수록 더 많은 심리적인 괴로움을 경험하리라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따라 성소수자가 성적지향 마이

크로어그레션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괴로움(distress)을 우울과 불안 두 차원으로 정의하였다(윤수진, 2019; 이현정, 2021; 이호림 등, 2017; Liao, Kashubeck-West, Weng, & Deitz, 2015; Ross et al., 2018; Seelman, Woodford, & Nicolazzo, 2017).

Bell과 Weinberg(1978)는 성소수자가 사회의 이성에 중심적 메시지를 내면화하여 자기 자신을 부적절한 존재로 여기고 혐오하는 것을 내면화된 동성애혐오(internalized homophobia)라고 정의하였다. 즉,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약점으로 여기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대처 양식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성적정체성을 바꾸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시도로(예: 전환 치료) 나타날 수 있다(Martin & Dean, 1987). 내면화된 동성애혐오는 이론가에 따라 내면화된 동성애 거부(homonegativity)나 내면화된 이성애주의(heterosexism)등 다양한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다. 각 개념은 개인에게 부여된 성적인 낙인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비슷하지만(임민경, 2014), 이론가의 철학과 지향점에 따라 다소간의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내면화된 동성애혐오는 Bell과 Weinberg(1978)가 제안한 이후 Meyer(2003)의 소수자스트레스 모형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Herek(2004)은 동성애혐오(homophobia)가 병리적 용어인 공포증(phobia)을 차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동성애자들을 향한 부정적 태도가 공포라기보다 분노(anger)나 역겨움(disgust)에 가깝기 때문에 동성애혐오라는 용어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Szymanski(2004)는 해당 개념을 내면화된 이성애주의로 명명할 때 차별의 책임소재가 이성애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구조에 있

음을 명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에 규범에 따라 작동하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정치적 특징을 부각시키고 성소수자에게 내면화된 이성에 규범과의 관계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모든 용어를 내면화된 이성애주의로 통일시켜 진행하려 한다.

국내에서 진행된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Meyer(2003)가 제안한 소수자스트레스 모형의 하위변인으로써 다루졌다(그림 1). 소수자스트레스 모형은 언어적, 물리적 폭력경험과 차별 경험을 외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외부 차별경험에 대한 내적과정으로서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와 거절에 대한 예상이 강화되며 정체성을 은폐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도 해당 모형이 반복 검증되었으나(박수현, 2010; 손주연, 2019; 이호림, 2015) 소수자스트레스 모형의 하위변인으로서 내면화된 이성애주의가 다루져 그 단독적인 효과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소수자스트레스 모형은 보다 직접적인 폭력과 차별경험을 외적 소수자스트레스로 상정하여 성적지향 마이크로

어그레션과 같은 미묘한 차별 또한 소수자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우람(2020)은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때 거절에 대한 예상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여 모호한 특징을 가진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또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차별 경험과 같이 성소수자의 내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우람(2020)의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변수인 거절에 대한 예상은 자신의 성적지향에 대한 타인의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성소수자가 자기 자신에게 갖는 태도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해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노출되는 것이 성소수자 자신에 대한 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즉 성소수자의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Platt과 Lenzen(2013)이 수행한 질적연구에 따르면 부모나 가까운 친구, 애인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성소수자에게 쉽게 내면화되고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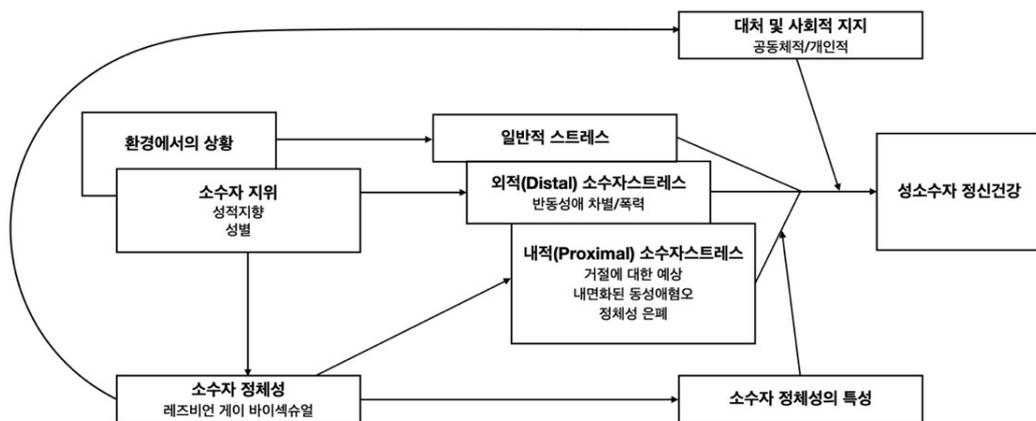


그림 1. Meyer(2003)의 소수자스트레스 모형

또 다른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마주할 때 성소수자는 자신의 언행을 검열하고 억압하게 된다. 또한 Nadal과 동료들(2011)의 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가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할 때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에 대해 걱정하며 이성애 규범에 순응해야 할 것 같은 압력을 느끼는데, 이러한 현상이 만성화될 경우 내면화된 이성애주의가 증가하게 된다. 즉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마주할수록 이성애 규범에서 이탈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검열하며 결국 자신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Balsam, Molina, Beadnell, Simoni, & Walters, 2011; Feinstein, Goldfried, & Davila, 2012). 결국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인해 강화된 내면화된 이성애주의는 성소수자의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Lewis, Derlega, Griffin, & Krowinski, 2003; Newcomb & Mustanski, 2010; Szymanski, Kashubeck-West, & Meyer, 2008a).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발생할 때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내면화되어 있던 이성애 규범이 자극되거나 강화되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강해지고 결과적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심화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이성애주의가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Meyer(2003)의 소수자스트레스 모형에 따르면 소수자스트레스는 개인적/공동체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로 완충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결과가 혼재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사회적 지지가 소수자스트레스를 조절하는지 살펴본 이호림(2015)의 연구에서 성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 사회적 지지는 소수자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했으며, 강병철(2011)의 연구에서 가족의 지지는 오히려 높은 정체성 은폐와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지지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Bergart, 2004) 집단적 지지가 주어지는 맥락과 사회적 지지를 수용하는 당사자의 주관적 지각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McMillan & Chavis, 1986; 이성원, 연구진, 2020).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실시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2014)에 따르면 국내 성소수자(LGBTI)의 90.4%가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 경험, 69.2%가 오프라인 커뮤니티 참여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성소수자 공동체 안에서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할 때 연대감을 느끼며 자신의 정체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교적 최근까지 국내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을 측정할만한 도구와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이성원과 연구진(2020)의 성소수자 공동체의식 척도(*Psychological Sense of LGBT Community Scales; PSOC-LGBT*) 번안 타당화로 국내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위 척도는 McMillan과 Chavis(1986)의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소속감을 가지는 집단의 구성원과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구성원 간에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서적 유대감으로 공동체 의식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Lin과 Israel(2012)이 성소수자를 위한 공동체 존재 인식을 하위요인으로 추가하여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성소수자 공동체는 성소수자를 고립감과 외로움으로부터 지키고, 개인의 경험을 타

당화하며, 모욕적인 사건에 대안적인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충할 수 있다(Sue, 2010a). 또한 성소수자 공동체 안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정당한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개인이 이성애주의에 입각한 부정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Meyer, 2003) 사회가 부과하는 억압을 인식하도록 돕고, 집단적 지지를 제공하여 미래에 대한 더 나은 희망을 구성하게 한다(Nadal, Whitman, Davis, Erazo, & Davidoff, 2016). 국내 남성 동성애자의 정체성 발달 모형을 연구한 여기동과 이미형(2006)의 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는 혼란, 인식, 저항, 수용, 자긍심의 5단계를 거치며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자긍심 단계의 참여자는 성소수자 공동체의 문화를 체험하며 사회적으로 만연한 편견과 차별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황단비(2020)가 진행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내면화된 이성애주의가 높아질수록 성소수자 긍정적 정체성이 감소하는데 이때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이 높다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낮아졌다. 이는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이 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의를 종합하면,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은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성소수자의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데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절된 내면화된 이성애주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는 가설이 도출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내면화된 이성애주의가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매개할 것이다. 둘째, 성적지향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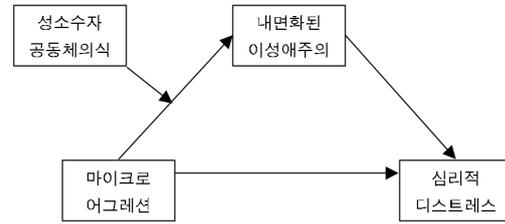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이크로어그레션이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이 조절할 것이다. 셋째,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내면화된 이성애주의를 통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체의식이 조절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인 C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실시되었다(1040395-202008-26). 구글 설문지를 통해 진행된 본 연구는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를 받았으며 모두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가하였다. 대표적인 온라인 성소수자 커뮤니티 2곳과 각 대학의 성소수자 게시판에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을 게시하였고 대학청년 성소수자 모임연대(QUV)의 도움을 받아 국내 거주 중인 성소수자(LGB) 33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성별정체성 차원의 혼입을 막기 위해 간성(intersex) 참여자를 제외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진행한 설문을 추가로 제외한 후 총 290부의 설문을 분석하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90)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여성	153	52.75
	남성	137	47.25
성적지향	동성애자	148	51.03
	양성애자	142	48.97
연령	10대	47	16.21
	20대	219	75.52
	30대	18	6.21
	40대	4	1.37
	50대	2	0.69
	평균		17.3세

였다. 표 1은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153명(52.75%), 남성 137명(47.25%)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지향은 동성애자 148명(51.03%), 양성애자 142명(48.97%)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분포는 20대가 219명(75.5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10대(16.21%), 30대(6.21%), 40대(1.37%), 50대(0.69%)의 비율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측정하기 위해 Woodford등(2015)이 개발한 대학 내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를 박도담과 유성경(2019)이 번안하여 확장 타당화한 한국판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Korean Version of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Scale; K-SOMS)척도를 사용했다. 이솔희(2019) 또한 국내 성소수자(LGB)를 대상으로 미묘한

차별경험 척도를 개발한 바 있으나, 박도담과 유성경(2019)이 타당화한 척도가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의 개인적이면서도 사회 구조적인 특성을 더욱 잘 반영하고 있으며,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타당화가 이루어져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본 척도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일반적’, ‘개인적’, ‘환경적’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24문항이다. ‘전혀 없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예시문항으로 ‘완전 게이 같다는 말이 부정적이거나 바보 같거나 멋지지 않은 의미로 쓰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등이 있다. 박도담과 유성경(2019)의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일반적 .85, 개인적 .84, 환경적 .74로 나타났으며 전체 내적 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이성애주의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내면화된 이성애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Martin과 Dean(1987)에 의해 개발된 내면화된 동성애혐오 척도(Internalized Homophobia)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별도의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다수의 선행연구가 소수자스트레스 모형을 증명하고 강화하는 결과를 보여왔다(박수현, 2010; 박의주, 2012; 손주연, 2019; 이솔희, 2019; 이호림, 2015; 임민경, 2014; 황단비, 2020). 따라서 본 척도가 한국 성소수자의 내면화된 이성애주의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적지향을 부인하는 정도와 동성에 대한 욕망과 관련해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를 평가한다. 단일 요인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일 년 동안의 경험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해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예시 문항으로 ‘내가 성소수자라는 것이 나에게는 개인적인 약점으로 여겨진다.’ 등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손주연(2019)의 연구에서 .87, 이호림(2015)의 연구에서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8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디스트레스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우울 및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Derogatis와 Cleary(1977)가 개발한 Symptom Checklist-90-revision(SCL-90-R)을 김재환과 김광일(1984)이 표준화한 간이정신검사 척도를 활용하였다. 전체 척도는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 9개의 증상차원을 90문항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9개의 증상차원 중 ‘우울’과 ‘불안’ 두 차원만 활용하여 성소수자의 디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참여자는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에 대해 ‘전혀 없다(1점)’부터 ‘아주 심하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우울과 불안은 각각 13문항, 10문항이며, 예시문항으로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등이 있다. 박의주(201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6, 이호림(2015)의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우울 .92, 불안 .9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내적 합치도는 .96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공동체의식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성소수자 공동체의식

을 측정하기 위해 Lin과 Israel(2012)이 개발하고 이성원과 연구진(2020)이 번안 및 타당한 성소수자 공동체의식 척도(Psychological Sense of LGBT Community Scales; PSOC-LGBT)를 활용했다. 본 척도는 성소수자 공동체의 ‘영향력’, ‘공유된 정서적 연결감’, ‘소속감’, ‘욕구 충족감’, ‘공동체 존재인식’의 총 5개의 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총 22문항이다. 예시문항으로 ‘당신에게 다른 LGBT 사람들의 의견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등이 있다. 이성원과 연구진(2020)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영향력 .82, 공유된 정서적 연결 .84, 소속감 .95, 욕구 충족 .76, 공동체 존재 인식 .74로 나타났고 전체 내적 합치도는 .90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23을 활용했다. 본 분석에 앞서 조절된 매개모형의 기본가정을 검증했으며(Muller, Judd, & Yzerbyt, 2005)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3단계 검증방식을 따랐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먼저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조절효과를 검증한 뒤 최종적으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진행하였다. 분석은 Hayes(2018)의 SPSS Macro process를 사용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먼저 각 변인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또한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를 통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들의 왜도가 절댓값 2를 넘지 않으며, 첨도가 절댓값 7을 넘지 않음으로 정상성 가정을 만족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심리적 디스트레스($r=.365, p<.001$), 내면화된 이성애주의($r=.168, p<.01$), 성소수자 공동체의식($r=.265,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와 유의한 정적 상관($r=.297, p<.001$)을 보였고 성소수자 공동체의식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내면화된 이성애주의는 공동체의식과 유의한 부적 상관($r=-.229, p<.001$)을 보였다.

조절된 매개모형의 기본 가정 확인

조절된 매개모형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조절효과가 없음을 가정한다(Muller et al., 2005). 따라서 본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의 조절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조절효과 검증에 위해 Hayes(2018)가 제안한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였다.

표 3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B=.372, p<.001$)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B=-.102, p=.202$). 마지막으로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B=.082, p=.291$). 즉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이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가정을 충족하였다.

표 2.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290)

	마이크로어그레션	심리적 디스트레스	내면화된 이성애주의	성소수자 공동체의식
마이크로어그레션	-			
심리적 디스트레스	.365 ^{***}	-		
내면화된 이성애주의	.168 ^{**}	.297 ^{***}	-	
성소수자 공동체의식	.265 ^{***}	.021	-.229 ^{***}	-
평균	2.027	2.289	2.218	2.991
표준편차	.918	.908	.961	.652
왜도	.441	.641	.626	-.030
첨도	-.071	-.322	-.459	-.365

주. ^{**} $p<.01$, ^{***} $p<.001$

표 3.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조절효과

변수	B	se	t	p	LLCI	ULCI
상수	2.275	.051	44.531***	.000	2.175	2.376
마이크로어그레션(A)	.372	.057	6.537***	.000	.260	.484
성소수자 공동체의식(B)	-.102	.079	-1.277	.202	-.259	.055
A x B	.082	.078	1.058	.291	-.071	.236
상호작용에 따른 R ² 증가	ΔR^2		F		p	
	.003		1.119		.290	

주. ** $p < .01$, *** $p < .001$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2018)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였다. 표 4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175, $p < .01$) 내면화된 이성애주의도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B=.229, $p < .001$). 표 5를 보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총효과는 B=.361($p < .001$)이었으나 내면화된 이성애주의가 투입됨에 따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직접효과는 B=.321($p < .001$)로 감소하여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검증결과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검증

다음으로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이 성적지향

표 4. 마이크로어그레션과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의 매개효과

변수	B	se	t	p	LLCI	ULCI
종속변수: 내면화된 이성애주의						
상수	1.862	.135	13.768***	.000	1.596	1.129
마이크로어그레션	.175	.061	2.885**	.004	.056	.295
종속변수: 심리적 디스트레스						
상수	1.129	.151	7.502***	.000	.833	1.425
마이크로어그레션	.321	.053	6.028***	.000	.216	.426
내면화된 이성애주의	.229	.051	4.499***	.000	.128	.329

주. ** $p < .01$, *** $p < .001$

표 5. 마이크로어그레션과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의 매개효과 검증

효과	B	se	LLCI	ULCI
총효과	.361	.054	.254	.468
직접효과	.321	.053	.216	.426
간접효과	.040	.017	.012	.078

표 6. 마이크로어그레션과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조절효과

변수	B	se	t	p	LLCI	ULCI
상수	1.756	.540	3.252***	.001	.693	2.819
마이크로어그레션(A)	.927	.265	3.491***	.001	.404	1.450
성소수자 공동체의식(B)	-.026	.177	-.148	.881	-.376	.323
A x B	-.215	.083	-2.591**	.010	-.378	-.051
상호작용에 따른 R ² 증가	ΔR^2		F		p	
	.021		6.717**		.010	

주. ** $p < .01$, *** $p < .001$

마이크로어그레션과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보기 위해 Hayes(2018)의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하였다. 표 6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B=.927, $p < .001$)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B=-.026, $p = .881$). 이는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에 대한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의 주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 결과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26, $p < .01$).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의 조절효과를 쉽게 해석하기 위해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인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조절변인인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을 각각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의 경험이 많을수록 내면화된 이성애주의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그래프의 기울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내면화된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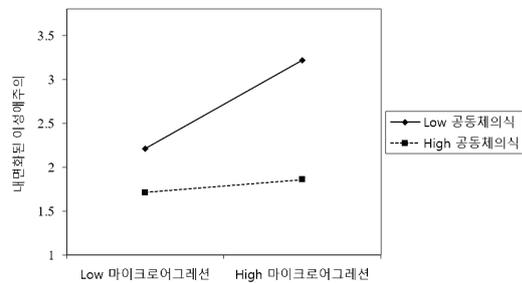


그림 3.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의 상호작용 효과

자 공동체의식이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한다고 볼 수 있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최종적으로 조절된 매개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Hayes(2018)의 PROCESS macro Model 7을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고($B=.927, p<.001$) 내면화된 이성애

주의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229, p<.001$) 각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매개효과가 있었다. 또한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321, p<.001$)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215, p<.01$). 이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내면화된 이성애주의가 매개하는데, 이 관계는 성소수자 공동체의식 수

표 7.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종속변수모형 (종속변수: 심리적 디스트레스)				
	B	se	t	LLCI	ULCI
상수	1.129	.150	7.502***	.833	1.425
마이크로어그레션	.321	.053	6.028***	.216	.426
내면화된 이성애주의	.229	.051	4.499***	.128	.329
	매개변수모형(종속변수: 내면화된 이성애주의)				
	B	se	t	LLCI	ULCI
상수	1.756	.540	3.252**	.693	2.819
마이크로어그레션(A)	.927	.265	3.491***	.404	1.450
공동체의식(B)	-.026	.177	-.148	-.376	.323
A x B	-.215	.083	-2.591**	-.378	-.051

주. ** $p<.01$, *** $p<.001$

표 8. 성소수자 공동체의식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공동체의식 수준	B	se	LLCI	ULCI
-1SD	.097	.032	.044	.169
Mean	.065	.021	.029	.109
+1SD	.032	.016	.004	.067
조절된 매개지수		se	LLCI	ULCI
-.049		.022	-.098	-.012

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표 8은 성소수자 공동체의식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나타낸 것으로 평균(2.991)으로부터 ± 1 표준편차(± 0.652) 범위 내 모두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의 조절된 매개지수는 -0.049 로 95%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중인 성소수자 290명을 대상으로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와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이다.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소수자 공동체의식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선행된 연구 결과를 일관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수연, 2020; 박의주, 2012; 손주연, 2019; 윤수진, 2019; 이호림, 2015; Feinstein et al., 2012; Kaufman et al., 2017; Lewis et al., 2003; Seelman et al., 2017). 한편, 성소수자 공동체의식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두 변인 간 직접적인 관계는 살펴볼 수 없었다. 이성원과 연구진(2020)의 선행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은 정신적 웰빙과 정적상관이 있었으나($r=.264, p<.001$), Bissonette과 Szymanski(2019)의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공동체의식과 우울증상 간에 정적인 상관을 보이기도 했다($r=.265, p<.001$). 이처럼 혼재된 연구 결과는 성소수자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와 효과가 공동

체의 형태, 참여의 맥락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공동체에 참여할수록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으나(Bissonette & Szymanski, 2019), 동시에 사회적으로 더욱 많은 낙인을 경험할수록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과의 제휴(affiliation)가 촉진될 수도 있다(Crocker & Major, 1989). 또 다른 선행연구는 오락중심(recreational)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남성 성소수자의 경우 신체감시 수준이 높아지며 섭식장애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Feldman & Meyer, 2007). 종합하면 성소수자 공동체가 언제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처럼 성소수자 공동체가 내면화된 이성애주의를 낮춤으로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다른 연구의 결과처럼 때로는 성소수자 공동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강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성소수자 공동체는 단일한 특성을 가진 공동체가 아닌,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개인과 집단의 총합이다. 아직 국내 성소수자 공동체의식 연구는 초기단계이다. 다양한 맥락과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성소수자의 공동체 경험을 더욱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해 가설이 검증되었지만, 이와는 별개로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에 대한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의 단독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성소수자 공동체의식 수준에 따라 내면화된 이성애주의 수준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표본집단이 동질적일 때, 즉 공동체의식 수준이 비슷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한

성소수자 참여자를 모집하는 의도적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과, 소수의 표본을 찾고 그 표본의 소개를 통해 표집을 누적해가는 누적 표집방식(snowball sampling)을 활용했다. 때문에 참여자 대다수가 비슷한 수준의 공동체 의식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Balsam et al., 2011; Nadal et al., 2011; Platt & Lenzen, 2013). 이러한 결과는 Meyer(2003)의 소수자스트레스 모형을 보다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수자스트레스 모형에서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폭력을 외부 차별경험으로 상정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같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차별도 내면화된 이성애주의를 매개해 성소수자의 심리적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면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의 모호성은 당사자로 하여금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이에 피해자는 이성애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본인의 정체성을 혐오하고 부정하는 방식의 대처양식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동과 이미형(2006)은 우리나라 성소수자의 자아 부정과 저항이 매우 높으며 자신의 성적지향을 치료를 통해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적지향을 치료하거나 교정하려는 시도는 가장 극단적 형태의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이며 이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비가시적 대상으로 여기고 승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된다. 즉 이성애 규범에서 발생, 재생산 되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성소수자의 자기개념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결국 심리적 괴로움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된 매개모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할 때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이성애주의가 증가하는 수준이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소수자가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내포한 부정적 메시지를 경험할 때 성소수자 공동체는 피해자의 정서적 경험을 타당화하며(Nadal et al., 2011), 대안적인 설명을 제시하는(Meyer, 2003) 역할을 수행한다. 흔히 성소수자의 긍정적 정체성을 자긍심(pride)이라고 부른다. 이는 자신이 속한 그룹과 문화를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말한다(Rubino, Case, & Anderson, 2018). 국내 연구에서도 자긍심 단계의 사람들은 성소수자 공동체를 통해 성소수자로서의 고유한 경험 속에서 자신의 강점을 발견했으며 나아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죄책감을 극복하여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여기동, 이미형, 2006). 즉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은 성소수자로 하여금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며 나아가 긍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실무적 제안이다. 먼저,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이를 차별로 인식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영향의 심각성이 간과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 따르면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의 부정적

영향은 소수자스트레스 모형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같은 미묘한 차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수자의 정신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이성애주의 규범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발화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 현장에서 성소수자를 대하는 실무자 또한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는 상담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작업동맹의 질을 저하시키고 치료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Owen et al., 2018; Spengler, Miller, & Spengler, 2016). 때문에 성소수자를 만나는 상담사는 자신의 가치체계를 돌아보고 실무 현장에서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Nadal(2008)은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다루고 개입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과정을 이해하며 이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사는 성소수자 내담자를 만나게 될 때 자신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내담자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Sue, 2010a). 나아가 한국상담심리학회 산하 LGBTQ+상담연구회에서 번역한 성소수자 상담 가이드라인을 활용한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사 자신의 편견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ALGBTIC LGBQIA Competencies Taskforce, 2013). 위와 같은 개인적 노력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기본 가치와 가정들이 상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김은하, 신윤정 그리고 이지연(2019)은 상담사를 위한 다문화 상담 교과과정을 개발하였으며 마이크

로어그레션 관련 내용을 한 주에 할애하여 다룬 바 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강령은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상담사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일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마땅한 응답으로써 전문 상담사 자격요건에 다문화상담 교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본 연구 결과는 성소수자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및 적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의 역할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소수자가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마주할 때 내면화된 이성애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은 증가한다. 때문에 소수자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성소수자를 만날 때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이성애주의의 체계적인 관계성을 이해하고 피해 경험을 자신의 성적 지향에 귀인하지 않도록 교육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주의 상담의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는데,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심리적 문제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해한다. 나아가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저해하는 전통적 억압에 도전하며, 억압의 재생산에 반대하는 사회적 행동을 격려한다(강문순, 2003).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소수자는 자기혐오, 즉 자신에게 부과되어온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의 원인이 이성애 중심의 사회 체제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나아가 구조적 차별의 폭력성을 고발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혐오하는 대처양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평동

에서 실시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 보고서(정용립 외, 2021)에 따르면 참여자의 60.8%는 자살이나 자해 충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연령, 사회적 지위, 경제적 계급의 측면에서 다양한 소수자 정체성이 교차하기 때문에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한 심리교육은 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자신에게 귀인하지 않도록 하는데 예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같은 미묘한 차별에 대해서도 성소수자 공동체가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성소수자가 일상에 만연한 차별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할 때 정신건강 실무자는 내담자가 속한 성소수자 공동체의 기능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성소수자 공동체의식의 구성개념을 활용한다면 내담자의 공동체 의식 수준을 평가하고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의 감소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 개인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과 양상은 다를 수 있으며, 성소수자 공동체의 참여가 반드시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성소수자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공동체의 지지는 무엇이며, 자원은 무엇인지 그 개인적인 맥락을 면밀히 탐색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 공동체는 차별경험을 타당화하고, 자신에게 부과된 내면화된 이성애주의를 재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성소수자 내담자를 만나는 실무자 또한 이와 같은 대안적

공동체를 치료 현장에서 재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실무자는 상담실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정의 옹호자로서 상담사의 활동영역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Ratts & Pederson, 2014).

다음은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다. 첫째로, 연구 참여자 모집 과정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의도적 표본추출과 누적표집을 활용하였다. 누적표집의 특성상 비슷한 특성을 가진 표본들이 전체 집단을 과잉 대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의 연령이 10-20대에 분포하였기 때문에(91.73%) 다양한 연령대의 성소수자의 경험을 대표하기 어렵다. 또한 표본수집이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소수자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성소수자의 경험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공동체 참여경험이 없는 성소수자 표본을 모집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론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성소수자의 내면화된 이성애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내면화된 동성애혐오 척도는 별도의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국내 선행연구가 소수자스트레스 모형을 증명하고 강화하는 일관적인 결과를 도출해(박수현, 2010; 박의주, 2012; 손주연, 2019; 이솔희, 2019; 이호림, 2015; 임민경, 2014; 황단비, 2020)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또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 그 결과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성소수자 관련 연구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 성소수자의 심리적 경험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본 연구는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측면을 반영하지 못했다. Szymanski(2004)가 ‘여성 성소수자는 성차별주의와 이성애주의라는 두 가지 억압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의 정체성은 성적지향을 포함하여 성별정체성, 장애, 사회계층, 종교, 연령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통해 구성된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의 삶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같은 성소수자라고 하더라도 레즈비언, 게이, 바이의 경험에 각각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주관적 현실은 끊임없이 교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거주자와 서울 거주자의 성소수자 공동체 접근성에는 차이가 있고, 기독교인 성소수자의 내면화된 이성애주의는 또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다. 이처럼 성소수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때 성소수자가 당면한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차별과 억압 가운데서도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개인적, 집단적 역량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문순 (2003). 여성주의 상담의 원리와 전망: 내담자와 상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병철 (2011). 사회적 낙인 인식이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2), 381-417.
-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김재환, 김광일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수연 (2020). 여성 동성애자의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와 성차별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 공동체의식과 긍정적 정체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하, 신윤정, 이지연 (2019). 상담전공대학원생을 위한 다문화 상담 교과 과정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321-1364.
- 박도담, 유성경 (2019). 한국판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Scale; K-SOMS)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899-927.
- 박수현 (2010). 동성애자의 소수자스트레스와 대처 전략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의주 (2012). 남성 동성애자의 내재화된 이성애주의와 심리적 안녕감 및 드러내기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주연 (2019). 소수자스트레스가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기동, 이미형 (2006). 한국 남성의 동성에 성 정체성 발달과정과 정신건강. 정신간호학회지, 15(3), 289-298.
- 윤수진 (2019). 성소수자(LGB)가 겪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원, 연규진 (2020). 성소수자(LGB)의 공동체의식과 긍정적 정체성이 정신적 웰빙에

- 미치는 영향: 소수자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639-666.
- 이솔희 (2019). 한국판 LGB 미묘한 차별경험 척도(K-LGB-MA)의 개발 및 타당화.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우람 (2020). 남성 성소수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 (2021).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성소수자(LGB)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반추와 사회적지지, 성적체성 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림 (2015). 소수자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LGB)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림, 이해민, 박주영, 최보경, 김승섭 (2017). Health disparities between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and the general population in South Korea: Rainbow Connection Project I. *Epidemiology and Health*, 39, 1-10.
- 임민경 (2014). 남녀 동성애자의 내면화된 성적 낙인척도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용림, 정민석, 유승희, 송지은, 박에디, 박상훈, 민지희 (2021).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 서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ttps://chingusai.net/xe/library/416855>
- 황단비 (2020). 소수자스트레스와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서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과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GBTIC LGBQQIA Competencies Taskforce: Harper, A., Finerty, P., Martinez, M., Brace, A., Crethar, H. C., Loos, B., Harper, B., Graham, S., Singh, A., Kocet, M., Travis, L., Travis, L., Lambert, S., Burnes, T., Dickey, L. M., & Hammer, T. (2013). Association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Issues in Counseling competencies for counseling with lesbian, gay, bisexual, queer, questioning, intersex, and ally individuals.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7(1), 2-43.
- Balsam, K. F., Molina, Y., Beadnell, B., Simoni, J., & Walters, K. (2011). Measuring multiple minority stress: the LGBT People of Color Microaggressions Scale.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7(2), 163.
- Bell, A. P., & Weinberg, M. S. (1978). *Homosexualities: A study of diversity among men and wome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Bergart, A. M. (2004). Group work as an antidote to the isolation of bearing an invisible stigma. *Social Work with Groups*, 26(3), 33-43.
- Bissonette, D., & Szymanski, D. M. (2019). Minority stress and LGBQ college students' depression: Roles of peer group and involvement.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6(3), 308.
- Cass, V. C. (1979). Homosexual identity formation: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Homosexuality*, 4(3), 219-235.
- Cochran, S. D., & Mays, V. M. (2000). Relation between psychiatric syndromes and behaviorally

- defined sexual orientation in a sample of the US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51(5), 516-523.
- Crocker, J., & Major, B. (198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4), 608.
- Derogatis, L. R., & Cleary, P. A. (1977). Confirmation of the dimensional structure of the SCL 90: A study in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4), 981-989.
- Feinstein, B. A., Goldfried, M. R., & Davila, J.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among lesbians and gay men: An examination of internalized homonegativity and rejection sensitivity as potential mechanis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0(5), 917.
- Feldman, M. B., & Meyer, I. H. (2007). Eating disorders in diverse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0(3), 218-226.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Herek, G. M. (2004). Beyond "homophobia": Thinking about sexual prejudice and stigma in the twenty-first century. *Sexuality Research & Social Policy*, 1(2), 6-24.
- Kaufman, T. M., Baams, L., & Dubas, J. S. (2017). Microaggressions and depressive symptoms in sexual minority youth: The roles of rumination and social support.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4(2), 184.
- Lewis, R. J., Derlega, V. J., Griffin, J. L., & Krowinski, A. C. (2003). Stressors for gay men and lesbians: Life stress, gay-related stress, stigma consciousness,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2(6), 716.
- Liao, K. Y.-H., Kashubeck-West, S., Weng, C.-Y., & Deitz, C. (2015). Testing a mediation framework for the link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sexual minority individua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2), 226.
- Lin, Y. j., & Israel, T.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sychological sense of LGBT community scal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0(5), 573-587.
- Martin, J. L., & Dean, L. (1992). *Summary of measures: Mental health effects of AIDS on at-risk homosexual men*. Unpublished manuscript. Columbia University, 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5), 674.
-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52.
- Nadal, K. L. (2013). *That's so gay! Microaggressions and th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ommunit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adal, K. L., Rivera, D. P., & Corpus, M. J.

- (2010). Sexual orientation and transgender microaggression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and counseling. In D. W. Sue (Ed.), *Microaggressions and marginality: Manifestation, dynamics, and impact* (pp. 217-240). New York, NY: Wiley.
- Nadal, K. L., Whitman, C. N., Davis, L. S., Erazo, T., & Davidoff, K. C. (2016). Microaggressions Toward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and Genderqueer People: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Journal of Sex Research*, 53:4-5, 488-508.
- Nadal, K. L., Wong, Y., Issa, M.-A., Meterko, V., Leon, J., & Wideman, M. (2011).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Processes and coping mechanisms for lesbian, gay, and bisexual individuals.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5(1), 21-46.
- Newcomb, M. E., & Mustanski, B. (2010). Internalized homophobia and internalizing mental health problems: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 1019-1029.
- Owen, J., Drinane, J. M., Tao, K. W., DasGupta, D. R., Zhang, Y. S. D., & Adelson, J. (2018). An experimental test of microaggression detection in psychotherapy: Therapist multicultural orientat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9(1), 9.
- Pierce, C. (1970). Offensive mechanisms. In F. Barbour (Ed.), *In the Black seventies* (pp. 265-282). Boston, MA: Porter Sargent.
- Platt, L. F., & Lenzen, A. L. (2013).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and the experience of sexual minorities. *Journal of Homosexuality*, 60(7), 1011-1034.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Ratts, M. J., & Pedersen, P. B. (2014). *Counseling for multiculturalism and social justice: Integration, theory, and application*. John Wiley & Sons.
- Ross, L. E., Salway, T., Tarasoff, L. A., MacKay, J. M., Hawkins, B. W., & Fehr, C. P. (2018).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Bisexual People Compared to Gay, Lesbian, and Heterosexual Individual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 Sex Res*, 55(4-5), 435-456.
- Rubino, C., Case, R., & Anderson, A. (2018). Internalized homophobia and depression in lesbian women: The protective role of pride. *Journal of Gay & Lesbian Social Services*, 30(3), 244-260.
- Seelman, K. L., Woodford, M. R., & Nicolazzo, Z. (2017). Victimization and microaggressions targeting LGBTQ college students: Gender identity as a moderator of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Ethnic & Cultural Diversity in Social Work*, 26(1-2), 112-125.
- Spengler, E. S., Miller, D. J., & Spengler, P. M. (2016). Microaggressions: Clinical errors with sexual minority clients. *Psychotherapy*, 53(3), 360.
- Sue, D. W. (2017). Microaggressions and “evidence” empirical or experiential realit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2(1),

- 170-172.
- Sue, D. W. (2010a).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Rac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Hoboken, NJ: Wiley.
- Sue, D. W. (2010b). *Microaggressions and marginality: Manifestation, dynamics, and impact*. John Wiley & Sons.
- Szymanski, D. M. (2004). Relations among dimensions of feminism and internalized heterosexism in lesbians and bisexual women. *Sex Roles, 51*(3), 145-159.
- Szymanski, D. M., Kashubeck-West, S., & Meyer, J. (2008a). Internalized heterosexism: Measurement, psychosocial correlates, and research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 525-574.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 Woodford, M. R., Chonody, J. M., Kulick, A., Brennan, D. J., & Renn, K. (2015). The LGBTQ microaggressions on campus scale: A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Journal of Homosexuality, 62*(12), 166 0-168.
- 1차원고접수 : 2023. 01. 31.
심사통과접수 : 2023. 03. 10.
최종원고접수 : 2023. 03. 30.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Sense of LGBT Community through Internalized Heterosexism

Hyunjin Sohn

Nam-Woon Chu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how a sense of LGBT community moderates internalized heterosexism that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by collecting responses from 290 lesbian, gay, and bisexual individuals via an online-based survey, with the hypothesis tested by using the Process macro for SPSS. There w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heterosex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dditionally, there was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a sense of LGBT commun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and internalized heterosexism. Finally,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a sense of LGBT commun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internalized heterosex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was found. This study delineated how LGB individuals' internalized heterosexism is associated with their psychological distress when they face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and expanded Meyer(2003)'s minority stress model in that not only explicit forms of discrimination but also implicit ones like microaggressions are related to the stress that the individuals from sexual minority groups experienc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 Psychological Distress, Internalized Heterosexism, Sense of LGBT Community